

WEEKLY HOT BOOKS

정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모든 꿈이 비즈니스가 되는 미래



《꿈과 돈》
지은이 니시노 아키히로
퍼낸곳 다산북스

일본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킨 개그맨의 성공담이 국내에 출간 됐다. 24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지만 ‘가장 재미없는 개그맨 1위’에 올랐던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 책에서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어떻게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한다.

흔히 ‘돈’과 ‘꿈’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돈은 냉혹한 전쟁터에서 누군가로부터 뺏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은이는 ‘돈’과 ‘꿈’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거대한 선순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강조한다. ‘인구소멸’과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젊은이를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 싶다면, 기능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경영과 경제 이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브랜딩 전략에 흥미를 가진 청소년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30만 엔 정도 남았으면 다행이 아니라 문제는 이 30만 엔을 모으기 위해서 생긴 여러 명이 크라우드 펀딩 홍보 활동들 무려 한 달 반이나 계속했다는 것. 사업이 얼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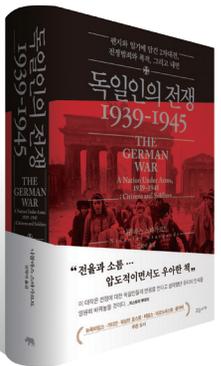
이전로 (적원을 태리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버티겠어. 만약 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다면 회사는 그 돈으로 배를 정비했을지도 모르고, 그 결과 무리한 유행 스케줄을 막음으로써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지식이야.

크라우드 펀딩이 일본에 처음 상륙한 건 2011년이야.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아직도 잘 모르지? ‘저체 제작 티셔츠’ 같은 건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로

31

“편지와 일기에 담긴 전쟁 이야기”



《독일인의 전쟁 1939-1945》
지은이 니콜라스 스타가르트
퍼낸곳 교유서각

독일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뒤틀린 대외로 얼룩진 2차 세계대전의 비밀스러운 속내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일기와 편지, 보고서와 법정 기록에 담긴 독일인의 생생한 육성은 전체주의 전쟁범죄에 숨은 낯설고 새로운 진실을 증언한다. 바로 독일 국민이 패전의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이다.

영국 최고의 나치즘 연구자인 스타가르트가 우아한 문체로 써내려간 이 책에는 히틀러와 괴벨스, 독일군과 독일시민 사이에 공유된 비밀스러운 유대인 학살 정보가 소수가 아닌 다수의 공모로 확산되는 과정이 섬세하고 잔혹하게 그려져 있다. 지은이는 전범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민족사회주의 독일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생생하고 균형 잡힌 통찰을 제공한다.

영국 작가협회가 수여하는 헤셀티트먼상의 역사 부문 수상작으로 세계사와 사회·문화, 윤리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전시 독일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보가 흘러 다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역사기담과 마찬가지로, 그 정보의 대부분이 가까운 친위과 가족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공유되었을 뿐, 친위단 체제적인 집단 내에서는 어떻게든 소문으로서만 존재했다고 가정했다. 홀로코스트가 공적인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발언들을 추적하고 분석한 것만은 다름 아니라, 그때까지 2년 동안 유대인을 강제이송하고 학살한 비밀경찰이었다. 더욱 기괴하게도 그런 정보가 입으로 유출될 뻔 할 동안, 독일 경찰과 친위대의 수장 하인리히 뮐러나 나치 제노파에 지도자였던 유일 유대인의 집안은 오히려 그러한 비밀리에 공유해야 하는 과업이며, ‘우리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 ‘비밀’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말하게 되었을까? 홀로코스트는 지난 25년간 나치 독일과 2차대전을 바르라는 후회의 시기를 경험했다. 그 시기에 정면된 것이 비록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그 시라 지체는 독일인들이 2차대전 당시 학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밝혀주지 않는다?

1943년 11월 18일 독일군 대위 아우구스트 뢰버만 박사는 일기에, 주 리투아니아 유대인들을 (용이부위 노반에 시코카) 어떻게 끌고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한 것이 틀림없는 금색만 세부 사항들을 올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1939년과 1940년에 학살에 대한 소문을 기록해놓았다. 그러나 정조가 달랐다. 이 시기에 뢰버만은 그 끔찍한 사실들을 일기의 도덕적 질서 속에 놓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전쟁에서 정당하게 살해되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질문했다. 그 목록에는 위군 병사, 독일군 후방에서 일하는 빨치산 자에 그 직원을 지원한 민간인들에 대한 제법적인 집단적 복수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그런 현실들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8 독일인의 전쟁 1939-1945

책 읽을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학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내일교육>이 꼼꼼히 살펴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올 두 권의 새 책, 기대해주세요. 편집자